

장흥축협 조합장 축사 무단 증축 불법 운영

장흥축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무단으로 축사를 증축해 운영하다 행정당국에 적발, 고발조치돼 조합원들로부터 반축을 사고 있다.

31일 장흥축협 조합원들에 따르면 문모(64) 조합장은 지난 1994년에 장흥읍 행원리 877번지 일원에 축사용 건축물(1375㎡)로 허가를 받은 후 1997년부터 3배 이상 건축물(4688㎡)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조합장은 건축법상 증축할 수 없는 자연녹지 지역(건폐율 20%)인 점에도 불

허가면적 3배 증설 사용
축사 담보 저리 용자도 받아
郡, 임원 2명도 함께 고발

구하고 참고 건물과 건축사 등 시설물을 의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 조합장 외에 수석이사인 위모(59)씨와 축협대리인 유모(57)씨도 함께 불법 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다 고발조치됐다.

이에 대해 문 조합장은 “당시 건축허가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불가피하게 축사를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 조합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축사에 부인 명의로 지난 2007년 6월에 농업 신용보증기금(농신보)으로부터 4000만원, 지난 2008년 5월에 5000만원, 지난해 8월에 7500만원을 받고 올 5월에 담보로 45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2000만원에 달하는 운전자금 명목으로 지원(융자금 3%)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문 조합장이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4688㎡)에 대해 60일(1, 2차) 이내에 철거명령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당국에 형사고발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3월 축협조합장으로 당선된 문모씨는 1970년대 후반 장흥축협에 입사한 후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젓소 사육을 해오다 현재 27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움천초등학교 임금순(맨 오른쪽) 교장이 여름캠프 교실에서 그림 그리기를 지도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물대포·소방차·헬기 동원 ‘지상 최대의 물싸움’

1~7일 탐진강변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 장흥에서 펼쳐진다.

장흥군은 1일부터 7일까지 장흥읍 탐진강 수변공원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2014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참가자 모두가 중심으로 돌아가 시원한 물줄기로 여름날을 장식하는 대규모 물놀이 이벤트인 ‘지상 최대의 물싸움’을 비롯해 물로 즐기는 육상,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체험 등 다채로운 수상·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기간 동안 매일 오후 2~3시 1시간 동안 장흥교 주차장에서 열리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은 물총과 물풍선 등 아이들 물놀이 기구뿐만 아니라 물대포와 소방차, 헬기까지 동원된다.

악당 역할을 맡은 진형요원과 정의의 투사로 변신한 관광객으로 편을 갈라 한판 물싸움을 펼친다. 악당의 이색 복장과 관광객의 영웅 코스프레까지 더해지면서 ‘특별한 수중전’이 전개되며 스티플과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일 오후 3~5시에는 장흥교 하류에서 ‘맨손으로 물고기 잡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는 관광객 1500명이 물고기 잡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을 대폭 확장했다.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장어, 메기, 잉어, 붕어 등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기 위한 관광객들의 추격전이 불 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서는 시원한 강바람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카타마란’, 물 위를 걷는 ‘워터 볼’, 경주도 하고 체험도 하는 ‘카누’와 ‘우든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포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수상자전거,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입수하는 바나나 보트, ‘희망의 줄배 타기’, ‘신나는 뗏목 타기’ 등도 흥미롭다. 문의 정남진 장흥 물축제 추진위원회 (061)860-0828.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포·신북면 주민 설명회

영암군은 최근 도포면 용동 마을회관과 신북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도 발기반 정비사업 설명회를 갖고 사업취지와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군은 총사업비 44억4000만원을 투입해 과수·채소·특용작물 주산단지인 도포면 용동지구와 신북면 근계지구 153.3ha에 융수 개발과 농로 개설, 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농산물 수송이 원활해져 물류비를 절감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저기영농실현과 농업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서울서... 부산서... 도시학생 힐링 유학 웃음 되찾은 폐교 위기 시골 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몰렸던 강진의 한 초등학교가 산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정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웠다.

강진군은 31일 “움천초등학교(교장 임금순)가 다양한 감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스테이 가정과 연계해 도시에 지친 학생들의 힐링 유학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 움천초등학교

홈스테이 연계 학생 유치

50대 늦깎이 학생도 입학

전교생 9명서 25명으로 늘어

움천초교는 지난 2월에 9명이던 학생이 현재는 2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감성 현장체험’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도시 학생유치 및 늦깎이 학생입학으로 이루어낸 성과이다.

올해 서울, 창원, 부산, 성남 등지 도시에서 7명의 학생이 전학을 왔다. 4~6학년생인 이들 학생들의 부모는 대부분 도시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학생들은 게임에 중독되는 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움천초교로 전학을 온 뒤 생활이 달라졌다. 학교 친구들과 놀러와 산자락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물고기가 노니는 낚시도 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들 학생들은 인근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 수 25명 가운데 50%가 다문화가정 학생인 것도 큰 특징이다.

또 올해 입학한 늦깎이 학생도 이 학교의 ‘인기 스타’다. 올해 임영숙(여·53)씨 등 3명의 성인 학생들이 입학해 해 어린 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또 대부분 교직원인 1년차 교사들로 ‘시골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열정도 뜨겁다. 방학기간 여름학교 캠프를 운영하면서 영어체험 프로그램, 정보공예, 미술수업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와 외국어에 능통한 학부모의 교육기부를 통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저녁교실도 운영되고 있다.

마을 주민과 공동체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움천초교는 지난 17일 움천면 엄지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더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움천초교 학생들이 갈고 닦은 품목 솜씨를 학부모와 지역민에게 선보였고 한국,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나라별 음식체험도 곁들여졌다.

또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를 체험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도 움천초교의 의미 있는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은 국비 확보를 통해 움천초교에 ‘힐링나눔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권 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움천초교와 청량중·강진고등학교를 연계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임 교장은 “전국적으로 홍보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지금까지 50건의 문의가 노니는 낚시도 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들 학생들은 인근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

이 학교 학생 수 25명 가운데 50%가 다문화가정 학생인 것도 큰 특징이다.

백혈병 환아·가족 위한 여름캠프

현대삼호중 봉사동아리, 다채로운 위로 행사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하경진) 봉사동아리 회원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캠프(사진)를 열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 봉사서클 ‘사람이 있는 푸른 세상’(회장 임명선)은 지난 26~27일 화순 그린랜드에서 백혈병 환아들과 동호회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화순병원 담당교수와 함께 하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물놀이, 숲속체험, 가족게임,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솜씨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람이 있는 푸른 세상’은 지난 1995년 뜻을 같이하는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

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내 봉사서클로 현재까지 430여 명의 백혈병 환아들에게 수술키와 병원비 6억 원 가량을 후원해오고 있다.

또 회사에서 연 3~4회 정기적인 헌혈은 물론 전개월 7700여 장의 헌혈증을 기증받아 백혈병 환아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임직원들에게 증정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선 바자회와 공연, 판매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과 문화활동을 전개하며 광주·전남 백혈병 환아들의 희망 지킴이가 되고 있다.

임명선 회장은 “어렵고 힘든 투병생활에 지친 백혈병 환아들과 가족들이 잠시나



백혈병 소아암 환아 가족 제 13회 한마음 여름캠프. 주: 현대삼호중공업 사람이있는푸른세상,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 부모회, 학교발전회,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임명선 회장, 김기주 부회, 주부대원동참회,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NAVER **단비플라워** 농협(박배성) 302-0316-649511

죽자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무소

소액투자 적합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바닷가
조망권 토질좋은 고금-신지도
연도교 입구 생산관리지역

• 전 : 9432㎡
• 매가 : 9000만원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면적 917㎡
• 매가 : 3.3㎡당 120만

최고급 별장
접근성,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45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 토지 : 4,900㎡
• 건물 : 245㎡
• 매가 : 협의
펜션이나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금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리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